‘조선 최대’ 나주 금성관 140년만에 해체 보수한다

나주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협약…2027년 완공
홍보관 설치 작업 현장 공개…윤병태 시장 “관심·협조 부탁”

조선 최대 규모 객사인 ‘나주 금성관’(錦城館)이 140년 만에 해체 보수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지난 7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금성관 해체보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김창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성관 해체 보수 사업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가설 덧집 설치를 포함해 금성관 해체·복원, 주변 정비 공사 등이 추진된다.

금성관은 1000년 역사를 간직한 목사고을 나주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나주목사내아, 나주향교, 서성문 등 나주읍성 문화유산과 곰탕 거리 중앙에 있어 나주 관광 1번지로 통한다. 객사는 조선 시대 왕을 상징하는 궐패를 봉안한 지방 궁궐이자 관아를 방문한 관리, 사신의 숙박 시설 기능을 했다.

이번 해체 보수는 1885년 중수(개축) 이후 140년 만이다.

금성관은 조선 성종 18~20년(1487년 4월12일~1489년 7월20일)에 나주목사(牧使) 이유인(李有仁)이 건립했다. 이후 1775년과 1885년에 각각 중수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군 청사로 기능해오다 1976년 보수 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금성관은 건축물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희소가치를 갖는다. 지붕 형태가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정청(객사 건축물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건물)과 대비되는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팔작지붕은 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을 뜻한다.

월대(대궐의 전각 따위의 앞에 세워놓은 기단)와 평면·입면, 천장 등이 궁궐의 정전과 비슷하게 구성돼 있어 격조 높은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금성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노후화 등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나주시는 국가유산청과 보수 범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4월께부터 금성관 건물 변형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활주, 가새 설치 등 긴급 보강공사가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부후(腐朽)·파손 등으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둥 등 목 부재를 보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짜 맞춰 댄 나무쪽(공포) 이상 해체 보수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까지 나주 금성관 해체 보수 설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성관의 체계적인 해체 보수 작업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건축물 수리를 마무리할 때까지 조사·연구를 병행하고 모든 해체 보수 과정을 기록화해 국가유산 가치 보존과 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140년 만에 해체 보수를 추진하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 객사 ‘나주 금성관’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1885년 중수 이후 140년 만에 해체보수가 이뤄지는 금성관의 새로운 여정을 시민·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해 작업 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조선 시대 전라도 행정의 중심지였던 나주목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유산인 금성관의 성공적인 해체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40년 만에 새로 단장에 들어가는 금성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한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학교급식 간담회…안전 먹거리 제공·농가 판로 확보 추진

장흥군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오는 9월 마무리한다.

장흥군은 최근 지역 학교급식,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분야 관계자와 ‘장흥군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과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가공·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간담회에서는 공공급식·학교급식 관련 지자체 관계자, 장흥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등 전문가들이 푸드플랜 수립의 목적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학교급식의 식재료 조달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장흥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학교급식 간담회’ 참석자들이 식재료 조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사업에 선정됐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장흥군 먹거리 실태조사·분석, 정책 현황 분석, 먹거리 관련 정책 제시, 제도적 기반(조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공급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불금불파·하멜촌텐트…강진서 ‘1박2일’

군, 체류형 병영 마을 여행상품 시범운영

강진군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병영면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1박2일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마을 여행 프로그램은 병영면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과 매주 운영되는 불금불파 축제, 하멜텐트촌을 연결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병영면만의 매력적인 농촌 감성을 내세운 지역맞춤형 패키지다.

프로그램은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홍골제 등 병영면 명소를 둘러보는 자전거 투어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며 병영면 대표 먹거리인 연탄돼지불고기를 맛보는 불금불파축제 ▲LED 튤립꽃밭과 모래놀이터가 있는 하멜텐트촌 숙박 ▲한골목길과 열린 정원을 걷는 마을 산책 ▲강진 조향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마을여행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위해 전문 사진작가가 동행해 스냅사진을 찍어주고, SNS에 후기를 올리면 인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군은 5월 말부터 홍보를 시작해 6월 첫째 주부터 2주간, 매주 6팀씩 모집해 운영 중으로 지난 7일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첫 번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14일에 시작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작천면에서 추진되는 ‘코끼리마늘꽃 3DAYS’와도 연계해 진행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코끼리마늘꽃밭을 배경으로 찍는 스냅사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한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은 생활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앞으로 조성되는 마을 호텔과 하멜 양조장을 연결한 새로운 콘텐츠의 마을 여행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담양군, 무질서한 공중케이블 정비…“미관 개선”

담양군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담양읍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 통신선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케이블을 제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담양군은 인구 50만 이하 도시여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애로가 있었지만, 이병노 군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대상 지역에 뽑힌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함평군 ‘농산물가공 창업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가공 창업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7월26일까지 주 2회로 총 10회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식품가공트렌드와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식품 표시기준 등 가공창업에 필요한 이론 수업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과정 수료자는 심화과정 우선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4일까지 센터 영농지원과 경영개선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